



최치원의 삼교융합사상과 그 의미

Choi Chi-won's a Fusion theory of Three thought and its Significance

저자

(Authors) Chang, Il-Gyu

출처

[신라사학보 \(4\)](#), 2005.8, 247-278(32 pages)

(Source)

[SILLASAHAKPO \(4\)](#), 2005.8, 247-278(32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422>

APA Style

(2005). 최치원의 삼교융합사상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4), 247-278

이용정보

삼성현역 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10/01 14:3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최치원의 삼교융합사상과 그 의미

張日圭*

I. 머리말	IV. 삼교융합사상의 사회적 의미
II. 儒·佛·道 삼교융합의 논리	V. 맺음말
III. 풍류사상의 강조	

【국문초록】

최치원은 풍류사상을 중심으로 유교와 불교, 도교를 융합하려고 하였다. 그의 삼교융합론에는 특별히 신라 고유의 仙敎가 강조되었지만, 그것은 불교적 관념을 바탕으로 삼았다.

삼교융합론은 902년 이후 작성된 <난랑비서>를 통해 나타났다. 이 글의 찬술은 901년부터 이루어진 의상과 법장 등 화엄 승려 전기의 작성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화엄 승려의 전기는 화엄사상을 강조한 경문왕계 왕실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으므로, 삼교융합론 역시 경문왕계 왕실의 권위를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주요 논저 : <최치원의 유교적 정치이념과 사회개혁안> 《韓國古代史研究》 38, 2005 ; <崔致遠의 華嚴僧傳 찬술과 海印寺의 화엄사상> 《新羅史學報》 創刊號, 2004 ; <崔致遠의 신라사회 이해와 재건 방향> 《孤雲學報》 創刊號, 2003 ; <崔致遠의 儒佛認識과 그 의미> 《韓國思想史學》 19, 2002 ; <崔致遠의 道敎思想과 그 의미> 《韓國思想과 文化》 17, 2002 외 다수

추구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었다.

최치원은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하여 신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실과 육두품을 중심한 방안이어서 골품의 신분제가 동요될 때 실현되기 어려웠다. 때문에 왕권의 전제화 경향을 옹호하는 화엄사상의 강조나 경문왕계 왕실을 주체로 상정한 삼교융합의 모색도 당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라 왕실을 융합의 주체로 상정하지 않고, 신라를 옹호하려는 의도를 품지 않았을 때 혼란한 당시 사회를 수습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다. 최치원의 삼교융합론은 신라 육두품 유학지식인들에 의해 고려 사회에 전승되어 사상계는 물론 사회 통합을 꾀하는 방안이 되었다.

주제어 : 최치원, 삼교융합론, 난랑비서, 풍류, 경문왕계 왕실

I. 머리말

신라말 최치원은 유교·불교·도교 삼교를 융합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은 그를 혼란한 신라말의 저명한 사상가로 인식하게 하였다. 특히 그가 유학자였으므로, 삼교융합의 중심은 자연 유교사상에 두어졌다.

최치원은 귀국 후 여러 글을 찬술하면서 자신의 유교·불교·도교 인식을 담았다. 그것은 따로 나뉘어져 표현되기보다는 서로 비교되거나 융화되어 서술되었다. 최치원은 사산비명에서 君王 治世의 이상인 王道는 물론 유교적 덕목인 孝와 仁을 불교적 追福과 教化, 佛心으로 연관지으면서 불교와 유교를 융화시켜 이해하였다.¹⁾ 특히 각종 發願文·讚文과 僧傳에는 융섭적 성격의 의상계 화엄사상을 강조하면서

1) 張日圭, <崔致遠의 儒佛認識과 그 의미> 《韓國思想史學》 19, 2002a, 40~52쪽.

유식사상과 선사상을 배제하지 않았다.²⁾ 이것은 군왕 중심의 유교적 정치이념과 어울릴 수 있었다. 한편으로 그는 유교와 도교도 함께 이해하였다. 재당시절 君王의 德化를 돕는 유학적인 관념을 가진 도교적인 神仙術에 관심을 가졌지만, 귀국 후 신선술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전부터 신라 사회에 融解된 修練的 신선사상을 주목하였다.³⁾ 유교·불교·도교를 서로 연관시켜 이해한 것은 시무책의 실현이 좌절되면서, 護佛의 관념으로 護國을 대신하여 신라 국가의 재건을 염원하려는 것이었다.⁴⁾

최치원의 삼교융합에 대한 이해는 유교·불교·도교사상의 연구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李基白이 시무책 진상 이후에 해인사에 은거하여 불교에 심취하면서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유불 양교의 융합을 모색하였다고 이해한 이래,⁵⁾ 삼교융합의 기본 논리도 유교사상이 부각되었다. 崔根泳·崔一凡·崔英成 역시 유교 중심의 삼교융합 논리를 지적하였다.⁶⁾ 이와 달리 金凡父와 李在云은 최치원이 초지일관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하면서도 유교·불교·도교를 일체적 견지에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삼교융합의 논리로 우리 고유사상인 風流

-
- 2) 張日圭, <崔致遠의 華嚴僧傳 찬술과 海印寺의 화엄사상> 《新羅史學報》 創刊號, 2004, 231~240쪽.
 - 3) 張日圭, <崔致遠의 道教思想과 그 의미> 《韓國思想과 文化》 17, 2002b, 146~164쪽.
 - 4) 張日圭, <최치원의 신라사회 이해와 재건 방향> 《孤雲學報》 創刊號, 2003, 203~211쪽.
 - 5) 李基白, <新羅 骨品體制下的 儒敎의 政治理念> 《韓國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235쪽.
 - 6) 崔根泳, <孤雲 崔致遠의 社會改革思想> 《韓國思想》 18, 1981 ; <孤雲 崔致遠의 思想研究—詩에 나타난 孤雲의 선비정신> 《韓國思想》 19, 1982 ; 崔一凡, <孤雲 崔致遠의 思想研究—三敎觀을 중심으로> 《柳承國博士華甲紀念 東方思想論攷》, 1983 ; 崔英成, <孤雲 崔致遠의 三敎觀과 그 特質> 《東洋古典研究》 9, 1997, 177~187쪽.

道를 발견하였음을 제기하였다.⁷⁾ 또한 金福順은 중국 삼교일치론 내지 삼교병립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⁸⁾ 하지만 풍류도의 발견과 강조가 어떠한 논리적 전개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구명되지 않았다.⁹⁾ 때문에 최치원의 유교·불교·도교 삼교융합의 모색이 유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최치원은 삼교융합의 논리를 仙敎에서 찾았다. 그것은 신라에 수용되어 발전한 불교와 밀접히 연결되었다. 따라서 최치원이 강조한 선교 중심의 삼교융합 논리를 찾고, 그것이 당시 신라 사회와 어떤 관련을 가졌는지를 보다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살피기 위해 작성하였다.

우선 최치원이 유교·불교·도교 삼교를 융합하려고 하였던 논리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풍류사상을 강조한 내용과 이유를 찾고, 그것을 당시 신라 사회상과 관련지면서 삼교융합사상의 의미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만 최치원의 사상은 하나의 사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부분적인 면에 치우쳤다. 따라서 새 국가 건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염두해 둘 것이다.

7) 金凡父, <風流精神과 新羅文化> 《韓國思想》 3, 1960, 106~109쪽 ; 李在云, <고운의 삼교융합론과 풍류도> 《崔致遠研究》, 1999, 171~195쪽.

8) 金福順, <최치원의 종교관>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탐구》, 주류성, 2001, 125~130쪽.

9) 최치원의 삼교융합에 대한 연구사 검토는 張日圭, <崔致遠 연구의 성과와 전망> 《北岳史論》 9, 2002, 91~92쪽에 자세하다.

II. 儒 · 佛 · 道 삼교융합의 논리

최치원이 유교 · 불교 · 도교 삼교를 융합하려 하였음은 <鸞郎碑序>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사료를 참고하기로 하자.

- A. 최치원이 지은 <鸞郎碑>의 序文에, “나라에 현묘의 도가 있는데 風流라고 일컫는다. 가르침을 세운 근원은 仙史에 갖추어 자세하다. 진실로 三教를 포함하며 여러 生靈을 접촉하여 교화한다. 또한 들어오면 집안에 효성을 다하고 나가면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孔子의 가르침과 같고, 無爲의 일에 마음을 두고 不言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老子의 근본과 같으며,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부처의 교화와 같다”고 하였다.¹⁰⁾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인 풍류가 있었다. 풍류는 魯司寇의 가르침과 周柱史의 宗旨, 竺乾太子의 教化인 삼교를 포함하며, 그 가르침의 근원은 이전부터 전해져오던 仙史에 실렸다. 최치원은 <난랑비서>에서 신라에 이미 유교 · 도교 · 불교를 아우르는 고유의 풍류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삼교융합의 모색은 이미 당나라에서 성행하였다. 최치원은 당에 머무는 동안 당나라에서 성행하였던 삼교융합 경향을 익힐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가 참고된다.

- B-1. 弘鼎이 오랫동안 轉念하기를 부지런히 하였으므로 문득 천거의 논의를 갖추었다. 능히 十地의 因에 의거하여 갑자기 九天의 총애를 받았다. 元戎이 요청하여 삼교의 병행을 기뻐하고, 法侶가 환호하여 한 부처의 갑작스런 출현을 놀라워하였다.¹¹⁾

10) 《三國史記》 권4, 진흥왕 37년 봄.

2. 자세히 생각해보니 무릇 가르침은 세 가지인데 부처가 그 하나이다. … 다음의 바람은 태위가 천하를 모두 맑게 하고 높이 廟堂에 앉아 가섭의 참된 종지를 강연하여 용과 덕을 건주어 뛰어나고, 儒童의 좋은 가르침을 높이 들어 기린과 때를 잃지 않아, 능히 상고의 바람을 일으키고 영원히 大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다. 무릇 털을 머리에 이고 이빨을 머금은 것과 비늘로서 물에 잠기고 날개로서 빙빙 나르는 것이 모두 자비를 받아 능히 해탈함이다.¹²⁾
3. 다만 宮觀을 고치는 것은 거칠어지고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어 경비가 심히 많이 든다. 때문에 혼자 재물의 근본을 갖출 수 없다. 오직 바라는 바는 중생들이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불교에서 “버리기 어려움을 능히 버린다”라고 하였으니 오히려 즐겁게 옮겨짐을 볼 것 같고, 도교에서 “自然으로 그런 것이다”고 하였으니 가벼이 허락하지 않기를 바란다.¹³⁾

고변은 흥정을 승정으로 삼아 삼교가 아울러 행해지는 것을 기뻐하였는데, 최치원은 승정을 요청하는 狀文에서 삼교 가운데 불교가 그 하나를 이룬다고 하였다. 또한 대운사를 중수하려는 고변이 가섭의 종지와 유동의 가르침을 포용하여 뜻을 세우고 마침내 해탈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道觀을 중수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지만, 불교와 도교의 이상과 실천을 따른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최치원이 당나라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는 삼교를 함께 행하는 사상

-
- 11) 崔致遠, <謝許弘鼎充僧正狀> 《桂苑筆耕集》 권4, 《崔文昌侯全集》, 306쪽에 “弘鼎久勤轉念 輒具薦論 能資十地之因 遽荷九天之寵 元戎獲請 喜三教之並行 法侶歡呼 驚一佛之或出”이라고 하였다.
 - 12) 崔致遠, <求化修大雲寺疏> 《桂苑筆耕集》 권16, 《崔文昌侯全集》, 377쪽에 “詳夫教列爲三 佛居其一 … 次願太尉 廓清寰宇 高坐廟堂 演伽葉之眞宗 龍堪比德 舉儒童之善教 麟不失時 克興上古之風 永致大同之化 凡於戴髮含齒 鱗潛羽翔 皆荷慈悲 盡能解脫”이라고 하였다.
 - 13) 崔致遠, <求化修諸道觀疏> 《桂苑筆耕集》 권16, 《崔文昌侯全集》, 378쪽에 “但以所修宮觀 荒摧既久 經費甚多 無因獨辦資種 唯仰衆成功德 迦譚之難捨能捨 猶見樂輸 道教之自然而 幸無輕諾”이라고 하였다.

적인 경향이 있었고, 그것은 유교와 불교·도교를 아울러 이해하는 것이었다. 고변은 삼교를 함께 이해하는 경향에 익숙하였다. 최치원 역시 고변을 대신하여 글을 작성하면서 삼교융합에 관심을 가졌다.

중국에는 불교 전래 때 佛老三尊併祀說이 제기된 이래 유교와 도교 불교와 도교간 교리 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¹⁴⁾ 특히 남북조 시대에 삼교간의 논란은 빈번하였다. 하지만 수나라의 중원 통일 이후 불교는 점차 부흥하였던 반면 유교는 세력을 잃고 쇠퇴하였으며, 도교 또한 꺾박받는 상태에 이르렀다. 때문에 삼교간의 교리 논쟁은 활발함을 잃었고 곧 融合調和論이 대두되었다. 융합조화론은 남북조 시대에 전개된 조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남북조시대 梁나라의 沈約은 《均聖論》을 지어 佛陀와 周公 같은 内外의 聖인이 주장한 교리는 같다고 보면서, 불타를 內聖, 공자를 外聖으로 삼아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와 불교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北齊의 顏之推는 심약이 논한 바를 더욱 명확히 정리하였는데, 특히 五常과 五戒를 조화시키고, 불교의 응보사상을 積善積惡說과 연결하여 유교 중심의 유교·불교의 조화를 꾀하였다. 사실 이러한 사상 경향은 東晉時代 孫綽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喻道論》에서 周公佛陀說을 내세워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隋代 이전에 대두한 儒佛調和論은 삼교간의 논쟁이 수그러들었던 수대에 이르러 영향을 미쳐 삼교조화론의 대두를 불러왔다.

수대의 삼교조화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도교·불교간의 조화를 꾀한 李士謙과 유교·불교간의 융합을 도모한 王通의 논리이다. 이사겸은 修身治國의 입장에서 佛教를 우선한 三教鼎立說을 주장하였고, 왕통은 수신치국의 입장에서 유교를 우선한 삼교정립설을 제시하였

14) 三教調和(融合)論에 대한 이해는 구보타 료온 지음·최준식 옮김, 《中國儒佛道 三教의 만남》, 민족사, 1990, 141~176쪽이 참고된다.

다. 이들은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 각각 자신의 입장을 근거로 우열을 인정하면서도, 兩教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데는 서로 보완적인 입장을 취하고 어떤 것도 없어서는 안된다고 논하였다. 다만 수신치국만을 강조하고 각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아, 논리적 치밀함은 결여하였다. 때문에 당나라에 들어서 삼교간 논쟁은 다시 전개되었다.

당 高祖 때 道士 傅奕이 유교와 연합하여 불교를 비판한데 대해 濟法寺 승려 釋法琳이 반박을 하자 논쟁은 심화되었다. 그것은 道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것과 《老子化胡經》의 眞僞 여부를 포함하여 兩教의 선후문제에 집중되었다. 자연 황실이 나서서 노자에 대한 존숭을 단순히 조상으로 숭배하는 하나의 의례로 정립하고 불교를 완전한 종교로 대우하여 양교의 조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당 中宗 이후 도교와 불교간의 대립은 사라지고 양교가 王政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 건국 이후 吉藏과 宗密 등은 유교를 폄하하여 불교 아래에 위치하게 하였다. 당 중기부터 유교도들은 排佛論을 전개하였다. 韓愈는 《原道》에서 유교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왕도의 수립을 주장하였고, 王道를 저해하는 불교와 도교의 폐지를 강조하였다. 배불론에 대하여 孟簡과 柳宗元 등은 護佛論을 주장하여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유의 제자들이 대부분 불교에 귀의하여 외형은 유교사상을 천명하였지만 내면으로는 불교 교리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는 차츰 융화되기에 이르렀다. 징관·종밀 등은 불교 교리를 해설하면서 유교의 교리를 대조해 비슷한 면을 지적하였다. 유학자나 승려들은 서로 근원을 달리하더라도 회귀하는 바는 같다고하여 차츰 儒佛 양교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결국 당나라 때에 도교와 불교의 논쟁은 황실에 의해서 정리되고, 유교와 불교의 논쟁도 유학자와 승려를 중심으로 융화되어 나갔다. 자연 수나라 이후 논리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

던 삼교융합론은 당나라 때에 들어서 성행하였다.

고변은 대운사를 증수하면서 가섭의 眞宗과 儒童의 善教를 모두 갖추고자 하였고, 道觀 증수를 꾀하면서 도교와 불교 양교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불교와 유교, 도교와 불교, 나아가 삼교를 함께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졌는데, 그것은 당시 당나라에 성행하였던 삼교융합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최치원은 회남절도사 고변 휘하에서 순관을 맡아 문한과 감찰을 담당하며 고변의 글을 대작하였다.¹⁵⁾ 자연 그는 在唐 시절에 이미 성행하였던 삼교융합론을 이해하고 있었던 셈이다. 귀국 후 그는 당나라에서 익힌 삼교융합론을 신라에 적용할 수 있었다.

최치원은 귀국 후 삼교융합론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사료를 참고하기로 하자.

- C-1. 무릇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사람은 나라마다 다름이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람은 승려가 되고 유학자가 되었다. 서쪽으로 큰 바다에 떠서 여러 번 통역하면서 학문을 쫓았다...드디어 부처의 지혜로운 햇불을 얻어서 빛이 五乘을 융합하였고, 先儒의 아름다운 반찬을 얻어서 六經을 실컷 즐겼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어 善에 들게 하고 온 나라로 하여금 능히 仁을 일으키게 하였다. 배우는 자가 말하기를, “부처와 공자가 教를 설한 것은 흐름을 구별하여 체제를 달리하였다. 둥근 구멍에 모난 나무를 끼우듯이, 서로 모순되어 한 귀퉁이만을 골똥히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시험삼아 그것을 논하면, 詩를 말하는 자는 文으로써 辭를 해치지 말고 辭로써 志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禮記》에서 말하기를, “말이 어찌한 갈래 뿐이리오. 무릇 각기 해당하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廬峯의 慧遠이 論을 지어 “如來가 周公·孔子와 더불어 이치의 端初를 발현함은 비록 달랐지만 돌아가는 바는 한 가지이다. 教體

15) 장일규, <최치원의 入唐 修學과 활동> 《정신문화연구》 26권 2호 통권 9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128~131쪽.

의 至極함을 능히 兼하지 못함은 만물을 겸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또한 沈約은 “孔子는 그 단초를 내었고, 釋迦는 그 돌아가는 이치를 다하였다”고 말하였다. 진실로 그 大綱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하니, 비로소 더불어 지극한 道를 말할 만하다.¹⁶⁾

2. 五常을 방위로 나눌 때 東方에 짝지어진 것이 ‘仁’이고, 三敎가 이름을 세울 때 淨域을 나타낸 것이 ‘佛’이다. ‘仁心’은 곧 佛이요, 불이 ‘能仁’을 제목으로 함은 법칙이다. 郁夷의 여리고 순한 성품의 근원을 인도하여 迦衛의 자비로운 가르침의 바다에 이르게 함은 마치 돌을 물에 던지고 모래를 비로 모으는 것처럼 쉽다. 하물며 동쪽의 제후로 바깥을 지키는 자가 우리만큼 큰 것이 없고, 地靈이 이미 好生으로 근본을 삼고 풍속 또한 交讓으로 우선을 삼았음에랴. 빛나는 태평의 봄이요, 은은한 上古의 교화이다. 더욱이 성품은 釋氏族과 뒤섞여 머리를 두루함이 寐錦의 존귀함을 차지하고, 말은 梵音を 계승하여 혀를 텅김이 多羅의 글자를 가득채웠다. 이것은 비로소 天彰이 서쪽을 돌아보고 海印이 동쪽으로 흐르게 된 것이다. 마땅히 군자가 머무는 곳에 法王之 道가 날마다 깊어지고 또한 날로 깊어지리라.¹⁷⁾

16) 崔致遠, <眞監和尚碑銘 並序> 《崔文昌侯全集》, 123~124쪽에 “夫道不遠人 人無異國 是以東人之子 爲釋爲儒必也 西浮大洋 重譯從學 … 遂得慧炬則光融五乘 嘉肴則味飫六籍 競使千門入善 能令一國興仁 而學者或謂身毒與闕里之說教也 分流異體 圓鑿方柄 互相矛盾 守滯一隅 嘗試論之 說詩者 不以文害台辛 不以台辛害志 禮所謂 言豈一端而已 夫各有所當 故廬峯慧遠著論 謂如來之與周孔 發致雖殊 所歸一揆 體極不能兼者 物不能兼受故也 沈約有云 孔發其端 釋窮其致 眞可謂識其大者 始可與言至道矣”라고 하였다.

17) 崔致遠, <智證和尚碑銘 並序> 《崔文昌侯全集》, 168~169쪽에 “五常分位配動方者曰仁 三敎立名現淨域者曰佛 仁心則佛 佛目能仁則也 導郁夷柔順性源 達迦衛慈悲教海 寔猶石投水 雨聚沙然 矧東諸侯之外守者 莫我大也 而地靈既好生爲本 風俗亦交讓爲先 熙熙太平之春 隱隱上古之化 加以性參釋種 遍頭居寐錦之尊 語襲梵音 彈舌足多羅之字 寔迺天彰西顧 海印東流 宜君子之鄉 染法王之道 日深又日深矣”라고 하였다.

신라인은 중국에서 유교와 佛法을 배워 와서 五乘과 六經을 통해 善과 仁을 일으켰다. 신라에서 유교와 불교는 따로 이해될 수 없었다. 때문에 최치원은 유교와 불교를 따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그는 심약의 말을 인용하여 불교를 중심으로 儒佛의 융화를 부각하면서, 東山 慧遠의 《沙門不敬王者論》을 인용하여 불교와 도교·유교가 교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같다고 역설하였다. 최치원은 귀국 직후 작성한 <진감비명>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와 도교와의 융합을 강조하였다.

삼교 융합을 강조하는 경향은 사산비명 가운데 가장 늦게 완성된 <지증비명>에서도 나타났다. 仁心은 곧 佛이고 부처를 能仁이라고 하므로, 자연 유교의 궁극적인 가치인 仁은 불교의 佛로 이해될 수 있다. 최치원은 887년 7월 이전 <진감비명>을 찬술한 뒤, 893년에 <지증비명>을 지을 때까지, 왕명을 받아 선사를 추모하고 왕실 원찰의 위상을 부각하는 사산비명을 찬술하면서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도교를 함께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졌다.¹⁸⁾

불교·유교·도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최치원은 유교·불교·도교 삼교의 조화를 모색하였다.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 D. 孔子는 仁에 의지하고 德에 의거하였으며, 老子는 白을 알면서도 능히 黑을 지켰네. 두 교가 헛되이 천하의 법칙으로 일컬어지지만 석가와 힘겨루기 어렵다. 십만리 밖 서역의 거울이 되고 일천년 뒤 동국의 촛불이 되었네. 계림의 땅은 오산 곁에 있어서 儒仙으로 옛부터 기특함이 많았네. 어여빨 손 曦仲은 직무를 비우지 않아서 다시 佛日을 맞아 空色을 분명히 나누었네. 教門은 이로부터 여러 단계를 나누었고 言路는 그것으로 인하여 도량의 물을 다스렸네.¹⁹⁾

18) 張日圭, 앞의 논문, 2002a, 33~48쪽.

19) 崔致遠, <智證和尚碑銘 並序> 《崔文昌侯全集》, 196~197쪽에 “麟聖 依仁乃據德 鹿仙知白能守黑 二教從稱天下式 螺髻真人難確力 十萬里外

공자는 인에 의지하고 덕에 의거하여 가르침을 베풀었고, 노자는 백을 알면서도 흑을 지켜 묵언의 종지를 세웠다. 그러나 공자와 노자는 석가와 비교하면 힘겨루기 어려웠다. 최치원은 공자와 노자·석가를 비교하여 유교와 도교가 盛世하지만 불교에 비하면 그만 못하다고 표현하였다. 그는 유교와 도교보다 불교를 殊勝하게 인식하였다. 곧 불교를 통해서 유교와 도교를 인식하거나 융합하려고 하였다.

신라말 유학지식인들은 최치원처럼 삼교를 함께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졌다. 다음의 사료를 참고하기로 하자.

E. □□□□ 임금은 百代에 禮樂을 내려주었고 용과 같은 황제는 萬方에 도덕을 폈다. 인을 숭상하고 의를 중히 여기지 않음이 없어 문과 무를 겸비하였고, 살림을 좋아하고 죽임을 싫어하지 않음이 없어 검소하고 인자하였다. 이와 같아서 이내 현묘한 곳에서 자취를 버리고 자연스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즐겼다. 인과를 깨닫고 雙□ □□思 … 모두 제거하며, 고요함이 성급함 … 인간사를 비유하여 마치 큰 꿈과 같다고 하며, 중생을 구제함이 마치 여래와 같았다.理는 말 잊음에 의지하였고 事는 사물을 초월하였다. 그것은 오직 우리 선사의 뜻이다.²⁰⁾

신라의 임금은 인의를 숭상하였고,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였다. 또한 현묘하고 자연스러운 곳에서 자취를 버리고 고요함을 즐겼다. 나아가 인과를 깨달아 인간사를 꿈처럼 알고 말을 잊고 사물

鏡西域 一千年後燭東國 鷄林地 在鼇山側 儒仙自古多奇特 可憐曦仲不曠職 更迎佛日辨空色 教門從此分階土 戚言路因之理溝洫”이라고 하였다.

20) 金穎, <月光寺 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 《朝鮮金石總覽》 卷上, 83쪽에 “□□□□之君 垂禮樂於百代 猶龍之帝 敷道德於萬方 莫不崇仁重義 允文允武 好生惡殺 乃儉乃慈 若洒掃跡玄妙之鄉 安寂自然之域 了因果而雙□ □□思而並除 靜爲足參 □ □□□□ 喻人間若大夢 齊衆生猶如來 理寄忘言 事超物外 其惟我禪師之宗乎”라고 하였다.

을 초월하여 중생 구제에 힘썼다.

金穎은 빈공진사 급제 출신으로 897년 賀正使로 入唐하였던 유학 지식인이었다.²¹⁾ 그는 왕명으로 낭원의 비명을 작성하면서, 신라의 임금이 유교와 도교, 불교 삼교에 침잠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와 도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면을 지적하였던 그 역시 신라 왕실처럼 유교·불교·도교에 대한 이해를 갖추었던 셈이다. 당시 신라에는 국왕은 물론 유학지식인까지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와 도교를 함께 이해하는 경향이 尙存하였다.

최치원은 신라 사회에 유행하였던 불교 중심의 삼교융합론에 영향을 받았다. 다만 老子를 ‘白을 알고 黑을 지킨 鹿仙’으로 표현하면서도,²²⁾ ‘鷄林에는 옛부터 仙과 儒에 奇特한 사람이 많았지만 점차 佛日을 맞아서 佛家の 教門이 여럿으로 나뉘는 만큼 變성하다’고 하여 불교와 연관된 仙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아마도 신라 고유의 神仙思想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최치원은 도교사상을 이해하면서, 養生을 통한 도교적인 神仙術의 추구보다는 이전부터 신라 사회에 불교와 연고되어 나타난 修練的인 神仙思想에 관심을 두었다.²³⁾ 그의 삼교융합론은 신라 사회에 尙存하는 신선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셈이다.

21)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262쪽.

22) 鹿仙은 老子를 지칭한다. 老子의 아버지가 사슴을 탄 仙人이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 뒤 노자를 孕胎하였다는 故事에서 온 말이다(崔英成, <大唐新羅國故鳳巖山寺教諡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 并序> 《譯註崔致遠全集》 1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98, 285쪽 주 350).

23) 張日圭, 앞의 논문, 2002b, 155~164쪽.

Ⅲ. 풍류사상의 강조

신라 사회에서 신선사상은 일찍부터 제시되었다. 단군신화에서 桓因의 아들 桓雄은 태백산 神壇樹에 내려와 神市를 건설하여 神政을 펼쳤고, 경주 仙桃山의 神母는 신선술을 행하였다. 특히 선도산신모가 신라의 토착신앙으로 자리하면서, 그 뒤 신라에 수용된 유교와 불교와 융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²⁴⁾ 때문에 중국의 도교적 신선술이 신라 사회에 전래되면서 불교와 연고된 수련적인 신선사상과 混淆되어 이해되었고, 오히려 신라의 수련적 신선사상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신라의 토착신앙이 유교·불교·도교와 관련하는 모습은 이미 신라 중고기에 형성된 花郎徒를 통해서 확인된다.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 F. 第二十四眞興王은 … 伯父 法興의 뜻을 사모하여 한 마음으로 佛法을 받들어 널리 佛寺를 일으키고 승려가 되기를 허락하였다. 또한 천성이 風味하고 널리 신선을 숭상하여, 人家의 娘子 가운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자를 가려 받들어서 原花로 삼았다. 그것은 요컨대 무리를 모아 재능있는 인물을 가려 孝悌忠信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大要였다. … 여러 해 뒤에 왕은 또한 나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명령을 내려 좋은 집안의 남자 중에 덕행있는 자를 가려 화랑으로 삼게 하였다. 비로소 薛原郎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花郎國仙의 시초였다. 때문에 溟州에 비를 세웠다. 이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악을 고치고 선을 새롭게 하며,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순종하도록 하

24) 金杜珍, <불교의 변화>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214~217쪽.

였으니, 五常과 六藝, 三師와 六正이 왕의 시대에 널리 행해졌다. ... 진지왕대에 이르러 흥륜사 승려 眞慈가 매번 堂主 미륵상 앞에 나아가 發願 誓言하기를, “원하건대 우리 大聖이 화랑으로 化現하여 세상에 나타나, 내가 항상 얼굴을 가까이하고 받들어 두루 돌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진실한 간절함과 지극한 기도는 날마다 더욱 독실해졌다. 어느 날 밤 꿈에 승려가 나타나 말하기를, “네가 熊川 水源寺로 가면 彌勒仙花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자가 꿈에서 깨어 놀라고 기뻐하면서 그 절을 찾았다. 열흘 동안 걸으면서 한 걸음에 한 번씩 절하며 마침내 그 절에 도착하였다. 문밖에 길고 작기가 시원하지 않은 한 소년이 있었는데, 고운 눈매와 입땀시로 마중나와 작은 문으로 끌어들여 손님 방에 이르게 하였다. 진자가 계단을 올라 예의를 갖추어 말하기를, “郎君은 평소에 나를 모르는데 어찌 이와 같이 은근하게 나를 기다려 맞이하는가”라고 하였다. 郎이 말하기를, “나 또한 京師人인데, 대사가 멀리서 이르렀음을 보고 위로하러 왔을 뿐이다”고 말하였다. 갑자기 문을 나서더니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진자는 우연한 일일 뿐이라 여기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절의 승려에게 이전의 꿈과 오게 된 이유를 말하고, 또한 “잠시 末席에 있으면서 미륵선화를 기다리고자 하는데 어떠한가”라고 말하였다. 절의 승려가 뜻이 허무함에 속으면서도 은근히 삼가함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주변에 千山이 있는데, 옛부터 賢人과 哲人이 머물러 살면서 冥感이 많다고 한다. 어찌 그 곳에 돌아가서 머물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진자가 말을 쫓아 산 아래에 이르니 산 신령이 노인으로 변하여 나와 맞으며, “여기 와서 무엇하려는가”라고 말하였다. 진자는 “미륵선화를 보려고 할 뿐이다”고 대답하였다. 노인이 말하기를, “전에 수원사 문밖에서 이미 미륵선화를 보았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려고 왔는가”라고 하였다. 진자가 듣고 놀라 겁내어 빨리 本寺로 돌아왔다. 한 달 쯤 못되어 진지왕이 소문을 듣고 진자를 불러서 이유를 물으며 “郎이 이미 스스로 경사인이라 하였다면, 성인은 헛된 말을 하지 않는데, 어찌 성 안에서 찾질 않는가”라고 하였다. 진자가 왕의 뜻을 받들어 무리를 모아 마을 사이를 두루 다니며 찾았다. 한 작은 소년이 화려하게 단장하고 눈썹무늬가 수려한데, 靈妙寺 동북 길가 나무 밑에서 거닐며 놀고 있었다. 진자가 놀라 나아가 맞이하면서, “이 사람이 미륵선화다”라 하고 “郎의 집이 어디며, 존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였다. 郎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未尸요, 어릴 때 부모가 모두 죽어서 어떤 성인지 알 지 못한다”고 하였다. 가

마에 태워서 들어가 왕에게 보였다. 왕이 공경하고 사랑하여 받들어 國仙으로 삼았다. 子弟에 대한 화목과 禮義와 風教는 보통 사람과 견줄 수 없었다. 풍류는 세상에 빛났는데 7년 쯤되어 홀연히 있는 곳을 모르게 되었다. 진자의 哀情은 매우 심하였지만, 자비로운 은혜를 입고 깨끗한 교화를 계승하여 능히 스스로 누우쳐 고치면서 정성껏 도를 수련하여 만년에 역시 그 최후를 알 수 없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未는 彌와 음이 서로 가깝고, 尸는 力字와 모습이 서로 비슷하다. 그것의 유사함에 假託하여 서로 헛갈리게 된 것이다. 大聖이 오직 진자의 정성에 감동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나타난 것이다”고 하였다. 지금 국인이 신선을 미륵선화이라고 부르고 사람에게 중매하는 자를 未尸라고 하는데, 모두 진자의 遺風이다. 路傍樹는 지금도 見郎이라고 부르고 또한 俗語로 似如樹라고 말한다.²⁵⁾

진홍왕은 신선을 숭상해서 原花를 조직하였다. 나아가 나라를 부흥하려면 반드시 風月道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시 화랑을 조직하였다. 화랑은 신선을 숭상하고 풍월도를 중시한 진홍왕에서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라의 신선’인 國仙이라고 불렸다. 화랑은 신라 최고의 신선이며, 나라를 保衛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화랑을 조직한 뒤 진홍왕은 명주에 비를 세워 나라 사람에게 惡을 고쳐 善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간에 敬順하게 하여, 나라에 五常과 六藝, 三師와 六正이 널리 행해지게 하였다. 신선의 최고인 화랑은 나라 사람에게 유교적 소양을 갖도록 하는 방편이었다.

흥륜사 승려 진자는 미륵이 화랑으로 現身하기를 꿈꾸어 靈妙寺 북쪽에서 未尸를 찾았다. 왕은 미시를 국선으로 삼았고, 나라 사람들은 그를 彌勒仙花라 불렀다. 진자는 화랑인 미시를 구하여 국선으로 모셨으므로, 화랑은 진자에 의해 불교와 긴밀히 관련되었다.

한편으로 화랑은 도교와 관련을 가졌다. 화랑의 조직은 黃卷으로

25) 《三國遺事》 권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정리되었는데,²⁶⁾ 黃은 皇帝와 老子를 가리키는 黃老이다.²⁷⁾ 연개소문이 도교를 黃冠이라고 불렀으므로,²⁸⁾ 자연 黃卷은 도교적 관념이 투영된 것이다. 화랑의 형성과 조직에는 도교사상이 녹아져 있는 셈이다.²⁹⁾ 국선인 화랑에는 유교와 불교는 물론 도교적 관념이 모두 반영되었다.

그런데 진자는 노인으로 변한 千山 신령의 도움을 받아 미시를 찾았다. 천산은 옛부터 賢人과 哲人이 머물러 그윽한 감응이 많았던 곳이다. 자연 천산의 신령은 중국처럼 靈藥으로 神仙術을 추구하여 이른 신선이 아니라 이전부터 신라에 토착해온 신선이었다. 국선 미시를 신라에 데려오는 것은 토착적인 천산 신령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던 셈이다. 화랑은 유교·불교·도교와 관련하면서도 토착적 산신신앙과 깊이 관계하였다.³⁰⁾

신라 사회에서 화랑은 왕실의 측근세력으로 활동하였다. 아래의 사료를 참고하기로 하자.

-
- 26) 《三國遺事》 권4, 二惠同塵조에, “釋惠宿 沈光於好世郎徒 郎既讓名黃卷”이라고 하였다. 黃卷은 화랑과 낭도를 기재한 名簿이다.
- 27) 鄭璟喜, <三國時代 社會와 仙道>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 一志社, 1990, 239~240쪽.
- 28) 《三國遺事》 권3, 寶藏奉老 普德移庵조에, “及寶藏王即位 亦欲併興三教 時寵相蓋蘇文 說王以儒釋並熾 而黃冠未盛 特使於唐求道教”라고 하였다.
- 29) 車柱環, 《韓國道教思想研究》, 서울대 출판부, 1978, 114쪽 ; 김태식, <신선의 왕국, 도교의 사회 신라—적석목곽분과 그 시대를 중심으로> 《문화재》 36, 2003, 220쪽.
- 30) 金富軾은《三國史記》를 편찬하면서 ‘花郎’의 용어만을 사용하였는데, 一然은 《三國遺事》에서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조만 제외하고 모두 ‘國仙’으로 표현하였다. ‘국선’이 仙敎의인 의미를 반영한다고 하면, 김부식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연은 불교 안에 선교적 의미가 융합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고집하였다고 하겠다.

G. 비로소 源花를 만들었다. 처음에 君臣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여 무리를 모아 함께 놀게한 뒤 행동과 의리를 본 다음에 천거해 임용하려고 하였다. 마침내 미녀 2인을 간추렸는데, 한 명은 南毛라 하고 또 한 명은 俊貞이라 하였다. 무리 300여 인을 모아 두 여자가 서로 예쁨을 다투고 시샘하였다.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뒤, 끌고 가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은 죽임을 당하였고 무리는 화목함을 잃고서 그만 흩어졌다. 그 뒤 다시 아름다운 용모의 남자를 골라 꾸며 화랑으로 불러 만들었다.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 혹은 서로 道義를 닦고 혹은 서로 歌樂을 기뻐하면서 山水를 즐겨 돌아다니며 멀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어긋남과 바름을 알게 되고 착한 자를 가려 조정에 천거할 수 있었다. 때문에 金大問은 《花郎世紀》에서 “현명한 신하와 충직한 신하는 이로부터 높이 솟아났고, 어진 장군과 용감한 군사는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하였고, … 唐의 令狐澄은 《新羅國記》에서 “貴人子弟 중 아름다운 자를 가려 분으로 꾸며 화랑이라고 불렀다. 국인이 모두 존경하여 섬긴다”고 하였다.³¹⁾

576년(진흥왕 37)에 진흥왕은 사람들을 모여 놀게한 뒤 행동과 의리에 뛰어난 자를 임용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남모와 준정, 두 미녀를 원화로 선발하였다. 남모와 준정은 각각 무리를 모아 서로 미모를 다투다가 준정이 남모를 죽였다. 이 일로 원화는 폐지되었고, 그 뒤 다시 남자를 뽑아 화랑으로 삼았다.

원화의 선발은 君臣이 인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진흥왕은 인품과 행실을 보아 인재를 선발하여 원화라 불렀지만, 원화제도는 원화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실패하였다. 원화 선발의 목적은 인재의 등용이었지만, 원화는 오히려 서로 패를 지어 싸우는 폐단을 낳았다. 원화의 폐지는 원화의 선발 목적과 운영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흥왕은 외모가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 화랑으로 삼았다. 화랑은

31) 《三國史記》 권4, 진흥왕 37년 봄.

원화와 달리 서로 道義를 닦고, 歌樂으로 즐겁게 하며, 名山大川을 遊歷하였으며, 왕은 그 중에 착한 자를 가리어 조정의 관료로 삼았다. 화랑은 선발 이후에 각종 교육을 받고 왕의 選別에 의해 조정에 나아갔다. 화랑제도는 진흥왕이 인재를 뽑기 위해 시행하였던 신라 고유의 인재 등용 방법이었다.

김부식은 유교사관을 바탕으로 《三國史記》를 찬술하였다. 그는 화랑제도의 형성을 기술하면서 인재로서의 화랑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특별히 김대문의 《화랑세기》에 ‘賢相과 忠臣은 물론 良將과 勇卒이 이로부터 나왔다’고 하였음을 인용하였다. 자연 최치원이 찬술한 <난랑비서>에 대한 인용 역시 단순히 화랑을 頌德하기보다는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신라 하대에 화랑은 사회적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다음의 사료는 이와 관련하여 참고된다.

H-1. 熊川州都督 憲昌은 아버지 周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반란을 일으켰다. 국호를 長安이라 하고 建元은 慶雲 元年이라고 하였으며, 무진주·완산주·청주·사벌주 등 네 주의 도독과 국원경·서원경·금관경의 仕臣 및 여러 군현의 守丞을 위협하여 자기에게 속하게 하였다. … 明基와 安樂 두 화랑이 각각 從軍을 요청하니, 명기는 무리와 함께 黃山에 나아가고 안락은 施彌知鎭에 나아갔다.³²⁾

2. 國仙 邀元郎·譽昕郎·桂元郎·叔宗郎 등이 金蘭을 유람하다가 몰래 군주를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뜻을 가져서 노래 3수를 만들었다. 이에 心彌 舍知에게 針卷을 주어서 大矩和尚의 주석처로 보내 노래 3수를 짓게 하였는데, 첫째는 玄琴抱曲, 둘째는 大道曲, 셋째는 問群曲이라 이름지었다. 들어가 왕에게 아뢰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상을 주었다. 노래는 자세하지 않다.³³⁾

32) 《三國史記》 권10, 헌덕왕 14년 3월조.

33) 《三國遺事》 권2, 四十八景文大王條.

822년(헌덕왕 14)에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자, 명기·안락 두 명의 화랑은 반란 진압에 가담하였다. 경문왕대 국선 요원랑과 예혼랑·계원랑·숙종랑 등은 임금을 위하여 治國의 뜻으로 노래 3수를 짓고 대구화상에게 보내 다시 노래 3수를 짓게 하였다.

명기·안락은 종군을 통해 정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요원랑·예혼랑·계원랑·숙종랑 역시 왕실의 안녕과 군왕의 강녕을 소원하며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신라 하대의 화랑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왕실과 관련을 갖고자 하였다.

신라 하대의 왕실은 원성왕의 여러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점차 分岐的 경향을 띄었다.³⁴⁾ 때문에 화랑들은 尊王的 성향을 갖기 어려웠다. 특히 김헌창 반란은 분기된 진골귀족들의 연합에 의해서 진압되었으므로, 반란 진압에 참여한 명기와 안락은 존왕적 경향을 띄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속한 가계의 정치적·사회적 기득권 유지에 민감하였을 것이다. 다만 금란에 행차한 4명의 화랑은 경문왕을 위하는 뜻을 가졌으므로, 아마도 경문왕을 지지하는 화랑일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올린 노래는 국왕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강조하는 뜻이 담겼다.³⁵⁾

신라 하대에 화랑의 활동이 점차 復興하는 가운데 화랑 출신인 경문왕이 즉위하였다. 그는 화랑으로서 유학적 소양을 강조하였다. 아래의 사료를 참고하기로 하자.

I. 왕의 이름은 膺廉인데 18세에 國仙이 되었다. 20세에 이르자 현안대왕

34)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앞의 책, 1984, 179~180쪽.

35) 全基雄, <新羅下代の 花郎勢力> 《新羅文化》 10·11, 1994, 7~9쪽.

이 郎을 불러 궁성 안에서 연회를 베풀며, “네가 국선이 되어 두루 사방을 유람하였는데, 어떤 특이한 일을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응림은 “신은 美行者 3인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하였다. 응림은 “다른 사람의 위에 있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래에 겸손히 앉은 자가 하나요, 권세있고 부유하면서 의복이 검소하고 편리한 자가 둘이요, 본래 귀한 세력이면서 위세를 쓰지 않는 자가 셋이다”고 말하였다. 왕은 그 말을 듣고서 현명함을 알고는 눈물이 떨어지는 줄도 알지 못하면서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수발을 받들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³⁶⁾

응림은 18세에 국선이 되어 사방을 유력하였다. 사방을 유력하는 것은 화랑도의 수련 방법으로, 응림도 여느 화랑처럼 산천을 유력하며 심신을 수양하는 수련을 거쳤다. 20세 되던 해 그는 궁중연회에 나아가 헌안왕에게 유력하면서 보았던 3인의 미행자를 이야기하며, 유교적 지식을 바탕으로 謙遜과 節儉을 강조하였다.³⁷⁾

경문왕 응림의 즉위는 유교적 소양을 특별히 여긴 헌안왕에 의해 이루어졌다. 곧 응림은 유교적 소양과 지식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때문에 그는 즉위 후 유학적 소양을 가진 유학지식인을 등용하여 왕권 강화를 추구하였다.³⁸⁾ 요원랑을 포함한 4명의 국선도 경문왕처럼 유교적 소양과 지식을 닦았다.³⁹⁾ 경문왕에게 충성과 신의를 강조한 국

36) 《三國遺事》 권2, 四十八景文大王條.

37)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앞의 책, 1984, 172쪽 주 96). 그는 경문왕이 실제 見聞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학 지식을 갖고 당시 화랑도의 덕목을 윤색, 부회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경문왕이 화랑으로서 유학적 소양을 가졌음은 분명하다.

38) 張日圭, <新羅末 慶州崔氏 儒學者와 그 活動> 《史學研究》 45, 1992, 17~20쪽.

39) 요원랑 등이 노래 3수를 짓는다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대구화상에게 역시 노래 3수를 짓게 하는 등, 활동이 前代에 비하여 관념적·문학적인 색채를 띠었는데, 이것은 화랑도의 조직과 수련이 하대에 들어와 발흥하기 시작한 文翰機構 및 漢文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李基東, <新羅

선은 자연 유학지식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국선인 경문왕은 유교 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삼교를 융합하려고 하였다.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 J-1. 太師에 追贈된 경문대왕은, 마음으로는 鼎教를 융합하고 얼굴로는 輪工을 찾았다.⁴⁰⁾
2. 先大王은 虹渚에 광채를 올리고 鰲岑에 자취를 내렸다. 처음에는 玉鹿에 이름을 전하여 특별히 풍류를 떨쳤는데, 갑자기 金貂에 관직을 얹혀 정중히 우리 풍속을 깨끗이 하였다. 龍田에 의지하면서 덕을 심고 鳳沼에 살면서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다. 말을 할 때 仁者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듯이 하고, 정치를 도모할 때 도로서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였다.⁴¹⁾

경문왕은 마음으로 ‘鼎教’, 유교·불교·도교 삼교를 융합하면서, 옥록에 이름을 날리어 특별히 풍류를 떨쳤다. 옥록은 신선에 비유되며, 國仙을 의미한다.⁴²⁾ 화랑이었던 경문왕은 풍류를 떨치며 삼교를 융합하였다. 최치원은 왕실과 관련된 숭복사의 비명을 지으면서 국선인 경문왕이 삼교를 융합하고 풍류를 떨쳤음을 부각하였다.

나라의 현묘한 도인 풍류는 그 가르침의 근원이 仙史에 갖추어졌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앞의 책, 1984, 172쪽).

40) 崔致遠, <智證和尚碑銘 並序> 《崔文昌侯全集》, 183쪽에 “贈太師景文大王 心融鼎教 面渴輪工”이라고 하였다.

41) 崔致遠, <大嵩福寺碑銘 並序> 《崔文昌侯全集》, 149~150쪽에 “先大王 虹渚騰輝 鰲岑降跡 始馳名於玉鹿 別振風流 俄縮職於金貂 肅清海俗 據龍田而種德 栖鳳沼而沃心 發言則仁者安人 謀政乃導之以道”라고 하였다.

42) 뿔이 옥처럼 견고하고 빛이 나는 사슴은 천성이 산림을 좋아하여 옛부터 자주 神仙에 비유되어 鹿仙·角仙·仙客·林屬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신선으로 비유된 옥록은 아마도 국선을 가리킬 것이다(崔英成, <有唐新羅國初月山崇福寺碑銘 並序> 《譯註崔致遠全集》 1, 203쪽 주 121).

으며 실제로 삼교를 포함하여 사람을 교화하였다. 자연 풍류를 떨쳤던 화랑은 삼교로써 사람을 교화하는데 익숙하였다. 국선인 경문왕은 일찍부터 풍류를 떨쳐 사람을 교화하였기에 마침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최치원은 삼교를 융합하려 하였던 인물로 경문왕을 지목하면서 삼교융합 논리로 풍류를 강조하였다. 경문왕은 즉위 후 유교와 불법의 존숭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부각하였고, 특히 화엄사상에 관심을 가졌다.

IV. 삼교융합사상의 사회적 의미

최치원은 경문왕계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⁴³⁾ 그는 귀국 후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하여 왕권강화 방안을 제시하였고,⁴⁴⁾ 화엄사상을 통해 ‘護國’을 강조하였으며,⁴⁵⁾ 신선의 가장 높은 격인 上仙으로 신라 왕실을 묘사하였다.⁴⁶⁾ 경문왕에 의한 삼교융합의 강조는 경문왕계 왕실을 위호하는 또 하나의 이념이었다.

<鸞郎碑序>는 ‘鸞郎을 송덕하는 비명의 序文’이란 뜻이다. 신라 하대에 활동하였던 화랑은 대개 명기와 안락처럼 ‘郎’을 붙이지 않거나 요원랑·예혼랑·계원랑·숙종랑처럼 ‘郎’을 붙였다. 난랑은 ‘鸞’과 ‘郎’으로 이루어진 이름이었다. ‘郎’은 화랑을 의미하지만, ‘鸞’은 군주의 至德을 상징하는 새의 이름으로 이해된다.⁴⁷⁾ 자연 ‘난랑’은 군

43) 張日圭, 앞의 논문, 1992, 14~20쪽.

44) 張日圭, <최치원의 유교적 정치이념과 사회개혁안> 《韓國古代史研究》 38, 2005, 267~275쪽.

45) 張日圭, <崔致遠 撰《浮石尊者傳》의 復元 試論>, 《北岳史論》 6, 1999, 64~78쪽.

46) 張日圭, 앞의 논문, 2002b, 165~168쪽.

주인 화랑, 바로 국선인 임금을 말한다. 응림은 국선으로 즉위하였으므로, 최치원이 추모한 난랑은 경문왕인 셈이다. <난랑비서>는 경문왕을 추모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찬술되었다.

헌강왕은 포석정과 金剛嶺, 同禮殿에서 南山神과 北岳神, 地神에 제사를 지냈다.⁴⁸⁾ 동례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지신은 그에게 춤을 추면서 ‘智理多都波’라고 노래하며 어진 이의 避身을 막으라고 경계하였다. 어진 이는 바로 헌강왕을 돕는 유학지식인이며,⁴⁹⁾ 地神은 仙人인 화랑을 말한다.⁵⁰⁾ 헌강왕대 화랑세력과 헌강왕의 왕권강화를 돕는 유학지식인은 여전히 공고한 결속을 유지하였다. 화랑의 활동은 헌강왕·정강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진성왕대에도 계속되었다. 다음의 기록을 참고하기로 하자.

K-1. 魏弘에게 명령하여 大矩和尚과 함께 鄉歌를 수집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三代目이라고 불렀다.⁵¹⁾

2. (知恩은) 漢歧部 백성 連權의 딸인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나이 32세이지만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반드시 좌우를 떠나지 않고 살폈으나 봉양할 것이 없었다. 혹은 품팔이를 하거나 혹은 걸식을 다니며 밥을 얻어서 봉양하였다. 날이 오래될수록 부족하고 고달픔을 이길 수 없었다. 부자 집에 나아가 몸을 팔아 종이 되고자 요청하여 쌀 10여 석을 얻었다. 종일 그 집에서 역을 행하고 날이 저물면 밥을 지어 돌아와 봉양하였다. … 어머니가 “나 때문에 종이 되었으니 빨리 죽

47) 鸞은 五采의 문양을 가진 새로 ‘鳳’·‘皇’으로도 불린다. 이 새가 자태를 드러내면 천하가 평온히 다스려진다고 하여, 君主 至德의 瑞兆를 의미한다(袁珂 著·鈴木博 譯, 《中國神話·傳說大事典》, 大修館書店, 1999, 681쪽).

48) 《三國遺事》 권2, 處容郎 望海寺조.

49) 張日圭, 앞의 논문, 2005, 268~269쪽.

50) 鄭璟喜, 앞의 논문, 1990, 247~248쪽.

51) 《三國史記》 권11, 진성왕 2년 춘2월조.

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며 소리를 내어 크게 울었고 딸 역시 울어 슬픔이 거리까지 감응하게 되었다. 때에 孝宗郎이 나아가 놀다가 이것을 보고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요청하여 조 100백과 의복 등을 실어다가 주었다. 또한 지운을 산 주인에게 보상하고 양민으로 바꾸었다. 낭도 수 천명이 각각 조 1석씩을 내어 주었다. 대왕이 듣고 또한 조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렸고 征役에서 면제시켰다. … 효종은 당시 第三宰相인 舒發翰 仁慶의 아들로 어렸을 때 化達이라고 불렸다. 왕은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老成한 바를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형 헌강왕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⁵²⁾

888년(진성왕 2)에 진성왕은 대구화상에게 명령하여 향가를 모아 《삼대목》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전에 대구화상은 요원랑 등이 지은 치국의 노래 3수를 받아 다시 3수를 지어서 경문왕에게 바쳤다. 이 때 경문왕은 노래 3수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으므로, 대구화상은 경문왕께 왕실과 밀접히 관련되었던 셈이다.

대구화상의 《삼대목》 작성은 화랑이 진성왕 초년에도 여전히 활동하면서 왕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존재하였음을 말해 준다. 진성왕은 위홍 사후에 ‘少年 美丈夫 각 3인’으로 대표되는 화랑세력을 측근으로 등용하였다.⁵³⁾

한기부 지운의 이야기는 아마도 진성왕 때의 일인 듯하다.⁵⁴⁾ 효종

52) 《三國史記》 권48, 孝女知恩傳.

53) 全基雄, <新羅末期 政治·社會의 動搖와 六頭品知識人>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신서원, 1994, 97~99쪽.

54) 《三國遺事》 권5, 貧女養母조에 “孝宗郎遊南山鮑石亭<或云三花述> 門客星馳 有二客獨後 郎問其故 曰芬皇寺之東里有女 年二十左右 抱盲母相號而哭 問同里 曰此女家貧 乞啜而反哺有年矣 適歲荒 倚門難以藉手 贖賃他家 得穀三十石 奇置大家服役 日暮橐米而來家 炊餉伴宿 晨則歸役 大家如是者數日 衣 母曰昔日之糠粃 心和且平 近日之香秬 膈肝若刺而心未安 何哉 女言其實 母痛哭 女嘆己之但能口腹之養 而失於色難也 故相持而泣 見此而遲留爾 郎聞之潛然 送穀一百斛 郎之二親亦送衣袴一襲 郎

랑은 지은의 효행에 감동하여 도왔고,⁵⁵⁾ 그 일로 헌강왕의 사위가 되었다. 효종랑이 효행을 포상하는 것은 유교적 관념을 유념한 때문이다. 그는 유교적 소양을 중시하였던 경문왕계 왕실의 화랑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진성왕 때까지 화랑은 경문왕계 왕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최치원 역시 유학지식인 가운데 특별히 경문왕계 왕실과 긴밀히 관계하였다. 다만 진성왕 때는 헌강왕의 서자 嶮를 두둔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경문왕계 왕실을 견제하였다.⁵⁶⁾ 결국 <난랑비서>는 경문왕계 왕실이 점차 쇠퇴해지자 왕실 권위를 부각하기 위해서 국선인 경문왕을 강조하려고 찬술되었다.

최치원은 887년~893년 동안 사산비명을 찬술하며 삼교융합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893년에 찬술한 <지증비명>에는 삼교융합의 주체로 경문왕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난랑비서>는 일단 <지증비명> 작성 이후에 찬술되었으며, 그 시기는 아마도 902년(효공왕 6) 이후였을 듯하다. 아래의 기록을 참고하기로 하자.

之千徒歛租一千石遺之 事達宸聰 時眞聖王賜穀五百石并宅一廛 遣卒徒衛其家 以儆劫掠 旌其坊爲孝養之里 後捨其家爲寺 名兩尊寺”라고 하였는데, 《三國史記》에 실린 효녀지은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때 진성왕이 500석과 집 한 채를 주었으므로, 《삼국사기》에 보이는 왕은 진성왕임이 확실하다.

한편 효종랑은 남산 포석정을 유력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포석정은 이전에 헌강왕이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진성왕 때에도 화랑은 여전히 祭場인 포석정과 연계되었고, 자연 왕실의 保衛勢力으로 존재하였다.

55) 효녀 지은의 이야기는 당시 곤경에 처하였던 왕경 내 하층민 구휼의 상징적 사건으로, 효종을 중심으로 한 화랑세력의 사회적 정신운동이며, 동시에 효종과 화랑세력의 美德과 힘을 과시하려는 일면이 숨어있다고 하였다(全基雄, 앞의 논문, 1994, 9~10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 효행 포상의 강조는 경문왕계 왕실의 유교진흥책과 관련된다.

56) 張日圭, 앞의 논문, 2005, 270~275쪽.

L. 大阿滄 孝宗으로 侍中을 삼았다.⁵⁷⁾

대아찬 효종은 902년에 시중직에 올랐다. 진성왕은 895년 嶢를 태자로 책봉한 다음 2년 뒤 요에게 禪位하고 해인사에 입산하였다. 그의 선위는 요를 옹호하는 세력의 견제를 받아 이루어졌다. <난랑비서>는 국선의 풍류를 강조하면서 경문왕을 존송하기 위한 의도로 찬술되었다. 따라서 <난랑비서>의 찬술은 경문왕계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효종이 시중에 오르자, 화랑의 풍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⁵⁸⁾ 최치원의 삼교융합사상은 경문왕계 왕실을 부각하는 존왕적 성격을 가졌으며, 신라 국가를 재건하려는 호국적인 성격도 담겼다.

V. 맺음말

최치원은 유학자였지만 불교와 도교, 나아가 신라 고유신앙인 신선사상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는 여러 사상과 신앙에 대한 관심을 통해 모든 사상을 융합하려는 경향을 가졌다.

최치원은 풍류사상을 중심으로 유교와 불교·도교를 융합하려고 하였다. 풍류를 통한 삼교융합론은 특별히 불교를 바탕으로 전개되었

57) 《三國史記》 권12, 효공왕 6년 춘3월조.

58) 효종은 화랑으로서 아버지 인경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헌강왕의 사위가 되었다(曹凡煥, <新羅末 花郎勢力과 王位繼承—(金)孝宗과 金傳의 활동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57, 1999, 30~33쪽). 혼인은 진성왕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진성왕을 선위시킨 효공왕대 시중을 지냈지만, 진성왕 초반부터 효공왕을 포함한 ‘경문왕계 김씨 왕실’과는 긴밀히 관계하였다.

다. 그것은 902년 이후 찬술된 <난랑비서>를 통해 나타났는데, 특히 901년부터 작성한 의상과 법장 등 화엄 승려의 전기와 관련되어 강조되었다. 화엄 승려의 전기는 경문왕계 왕실이 추구하였던 화엄사상을 부각하는 것이었다. 자연 그의 삼교융합론은 경문왕계 왕실의 권위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었다.

최치원은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하여 신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실과 육두품을 중심한 방안이어서 골품의 신분제가 동요될 때 실현되기 어려웠다. 왕권의 전제화 경향을 옹호하는 화엄사상의 강조도 왕실의 존엄만을 부각하였기에 지방 각처에서 성행하였던 선종사상과 쉽게 어울릴 수 없었다. 풍류사상을 통한 삼교융합의 모색 역시 사상 융합의 주체를 경문왕계 왕실로 설정하여 왕실의 위엄만을 강조하였으므로, 오히려 당시 사상계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최치원의 삼교융합사상은 신라 사회가 크게 동요하였던 당시에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다만 삼교융합사상은 유교·불교·도교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신라에 성행한 유교·불교·도교에 대한 인식은 물론 중국에서 성행하였던 삼교융합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였다. 신라 사회에서 유교·불교·도교는 육두품 출신 이상이 수용하였으므로, 삼교융합사상은 자연 세련된 지성을 토대로 전개되었다. 때문에 육두품 출신 선사들이 세련된 지성을 바탕으로 선종사상을 열어나가면서, 최치원의 삼교융합론은 수용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게 되었다.

최치원이 추구한 유교적 정치이념과 삼교융합론은 대개 당시에 활동하였던 육두품 유학지식인이 가진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것이 왕실을 융합의 주체로 상정하지 않고, 신라를 옹호하려는 의도를 품지 않았을 때, 혼란한 당시 사회를 수습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최치원의 삼교융합론은 그가 생존하였던 당시에는

구현되기 어려웠지만, 신라 육두품 유학지식인들에 의해 고려 사회에 전승될 수 있었다.⁵⁹⁾

59) 張日圭, <최승로의 유교적 정치이념과 최치원 추승> 《韓國思想과 文化》 21, 2003 참조.

【참고문헌】

- 《崔文昌侯全集》，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3
- 郭丞勳, 《統一新羅時代의 政治變動과 佛敎》, 국학자료원, 2002
- 구보타 료은 지음·최준식 옮김, 《中國儒佛道 三敎의 만남》, 민족사, 1990
- 金杜珍, <불교의 변화>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 金福順, <최치원의 종교관>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탐구》, 주류성, 2001
-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경인문화사, 2003
- 김태식, <신선의 왕국, 도교의 사회 신라-적석목곽분과 그 시대를 중심으로- > 《문화재》 3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 李基東,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李佑成, 《新羅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95
- 李在云, 《崔致遠研究》, 백산자료원, 1999
- 張日圭, <崔致遠의 道敎思想과 그 의미> 《韓國思想과 文化》 17, 2002
- _____, <崔致遠의 儒佛認識과 그 의미> 《韓國思想史學》 19, 2002
- _____, <崔致遠의 신라사회 이해와 재건 방향> 《孤雲學報》 創刊號, 2003
- _____, <崔致遠의 華嚴僧傳 찬술과 海印寺의 화엄사상> 《新羅史學報》 創刊號, 2004
- _____, <최치원의 유교적 정치이념과 사회개혁안> 《韓國古代史研究》 38, 2005
- 全基雄, <新羅下代의 花郎勢力> 《新羅文化》 10·11합, 1994
- 曹凡煥, <新羅末 花郎 勢力과 王位繼承-(金)孝宗과 金傅의 활동을 중심으로- > 《史學研究》 57, 1999
- 崔英成, 《譯註崔致遠全集》 1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98
- 韓國鄉土史研究 全國協議會 編, 《花郎文化의 新研究》, 경상북도, 1995

ABSTRACT

Choi Chi-won's a Fusion theory of Three thought and its Significance

Chang, Il-Gyu

Choi Chi-won was a confucian scholar but had concern in buddism, daoism and mountain wizard thought. He was willing to merge those thought interested in each thought and belief.

Choi advocated a fusion theory of three thought—confucianism and buddism, daoism. It was based on belief of mountain wizard which was a traditional faith of Silla. Especially the faith was focused on buddism.

Choi Chi-won's a fusion theory of three thought was expressed in the instruction of Nanrangbi, which was one of Hwarang(花郎)'s epitaphs. Nan(鸞) meant the name of king Kyeongmun. Before the king's accession to the throne, he was also a Hwarang. Choi was a writer and government official devoted to king kyeongmun's lineage. Therefore he had emphasized orthodoxy of the king Kyeongmun's lineage in his fusion theory.

It was difficult to realize confusians' social situation of the late Silla in Choi's theory. He was a six-rank(六頭品) bureaucrat. Generally, they understood confucianism and buddism, taoism like Choi. Choi Chi-won's a fusion theory of three thought was an unification theory of society. So a

confucian stressed to fuse social disruption in the early Koryo dynasty. Choi Chi-won's a fusion theory of three thought is one of social fusion theory in Korean history.

key words : Choi Chi-won, a fusion theory of three thought, an inscription of Nan Hwarang, pong-ryu(to believe mountain wizard, to train one's mind and body), the king Kyeongmun's lineage

논문 투고일 : 2005. 5. 28

심사 완료일 : 2005. 8. 15